

서울시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공공시설의 복합화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연구

이 선 영(가톨릭대학교 학부4년) · 서 귀 숙(숭실대학교 부교수)

공공시설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. 정부차원의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시설과 민간이 제공하는 시설들이 대도시에서 양적인 공급으로 시설자체의 부족을 충족하고 있으나 도시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여가 및 문화·복지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높은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. 현재 공공시설은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시설들이 공급되었으나 기능의 중복성과 함께 시설들 간의 체계적인 연계, 즉 복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. 본 연구는 공공시설의 시설 간 복합현황을 분석하여 양적 공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, 도시 주민생활의 지속적인 생활의 삶의 질 개선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의 복합화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 본 연구내용은 도시 공공시설의 분포와 대지현황, 공공시설의 복합정도 및 복합유형에 대한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. 연구대상은 서울시 25개구에 분포되어 있는 정부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시설로 제한하였다. 공공시설의 분류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교육시설을 제외한 5개 시설(공공행정시설, 보건의료시설, 체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)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. 연구방법으로는 각 공공시설의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 실시와 25개구가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구정백서와 구정현황을 조사 자료로 사용하였다. 조사시기는 2008년 1월 ~2008년 5월이다.

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1)서울시 5개 공공시설은 총 3140개 시설로, 복지>공공행정>문화>체육>보건의료시설 순의 높은 분포를 보였다. 25개구 중 강남구(총 288개 시설)와 송파구(총 155개 시설)가 많은 공공시설이 설치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. 2)대지현황형태에서는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단독건물형태와 동일대지 내 일체형의 건물형태를 보였다. 3)공공시설의 복합화는 1개~10개시설의 복합화로 구성되며, 이중 2개~3개 시설 간 복합이 가장 많은 분포 현황을 보였다. 복합시설의 종류는 5개 공공시설의 동종시설 간 복합화와 이종시설 간의 복합화로 분류하였다. 동종시설의 복합유형은 크게 공공행정>복지>문화시설 순의 분포로 나타났으며, 복지시설에서는 노인관련시설과 사회복지시설과의 복합유형이, 문화시설에서는 문화회관시설과 전시관람시설과의 복합유형이 가장 많은 현황을 보였다. 이종시설간 복합유형에서는 공공행정시설(행정서비스시설)+문화시설(도서관 또는 문화회관)>공공행정시설(행정서비스시설)+공공보건시설(보건소)>공공행정시설(행정서비스시설)+문화시설(문화회관)+문화시설(도서관)순의 분포를 나타내며, 이외에 복지시설(노인관련시설)+문화시설(문화회관), 복지시설(사회복지관)+문화시설(청소년관련시설)+체육시설(생활체육센터) 등 2개~3개 이상의 다양한 이종 공공시설 복합유형을 보였다.

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, 서울시 강남권에 집중된 공공시설 설치를 통해 25개구의 인구밀도와 자립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계획이 요구된다. 또한 복합화 유형은 25개구가 유사한 동종 및 이종시설의 중복을 지양하고 지역적 여건이 고려된 소규모의 시설 복합화에서부터 대규모의 시설 복합계획으로 지역간 격차해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. 이는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대응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.